



한복 입은 여성의 당돌한 일상 재미와 발랄함에 세계가 반하다

김현정 한국화가

글 신다혜 객원기자(dhshin131@techm.kr) 사진 송은지, 김현정아트센터

한복을 거침없이 걸어 올리고 범퍼카를 타는 여성, 고운 한복에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든 채 환하게 웃고 있는 댕기머리 소녀... 당돌하고 거리낌 없는 화폭 속 여성의 모습은 작가의 일상을 짐작케 한다. 한복과 한국화에서 떠올리는 고상함과 기품을 발칙한 발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김현정 화가를 만났다.

전통에 현대여성의 위트를 더한 '내숭이야기'

김 작가는 2016년 1월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초대개인전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한국화의 역사를 조명하는 전시에서는 최연소 작가로 초청 전시를 한 바 있다. 2017년에는 미국 경제지 포브스(Fobes)의 '2017 30세 이하 영향력 있는 30인'에 한국 미술인으로는 처음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화려한 이력에 대해 김 작가는 "입시미술에 최적화 된 사람이기 때문"이라며 겸손하게 답했다.

"미술의 '술'이 기술 술(術)자잖아요. 기술을 연마하듯 그림도 꾸준히 오래 그려야하는 것 같아요. 그 대단한 피카소도 3만 여장을 그렸다는데... 제가 부족한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오래 그렸고 그 덕에 조금씩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고 생각해요."

김 작가는 명품과 쇼핑을 좋아하는 여느 또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만큼 뒤에서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대학 때는 동양학과 경영학을 복수전공하면서 어느 하나 게을리 하지 않았어요. 덕분에 미대 전체 2등

으로 졸업할 수 있었죠."

졸업 후에도 꾸준히 그림을 그리면서 역량을 키웠다. 그러던 중 '내숭'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전시회에 구름 관중이 몰리면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한복 입은 여성은 안전하고 단아하다는 편견을 깨는 '내숭이야기'는 김 작가의 자화상이자 현대 여성상을 대변한다.

김 작가에 따르면 한복은 "고상한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흔하고도 일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데 효과적인 의상"이다. 격식을 차린 의상과 상식을 깨는(?) 행동의 대비를 통해 '내숭'이라는 주제를 좀 더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김 작가는 한복의 치마폭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치마폭이 넓잖아요. 많은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고, 우주 같이 비밀스러운 공간임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작품에서 내숭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속마음과 다른 겉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모든 태도'를 이른다. 이 내숭을 표현하고자 인물을 누드로 먼저 그려내고 상의 저고리는 서양의 콜라주 기법을 이용해 한지로 구성했다. 덕분에 한복의 서걱거리



한복 입은 여성은
암전하고 단아하다는
편견을 깨는 '내송이야기'는
김 작가의 자화상이자
현대 여성상을 대변한다.

는 재질감이 생생하게 살아난다. 치마폭은 아슬아슬 비치는 여체를 표현하기 위해 먹물의 농도를 사용하는 수묵 기법을 사용했다. 이것을 통해 '속이 흰히 들여다보인다'라는 내송에 대한 관객의 통찰을 유도한다. 특히 작품 속 명품구두나 가방은 '시선'에 의해 그 효용이 극대화되는 '시선의 결정체'인 동시에 또래 여인들의 본능적인 애착에 대해 굽지 않은 시선이 공존하는 아이러니한 물건이다. 즉 '시선'과 '통념'의 아이러니를 상징하는 물건이라는 것. 김 작가는 "예쁜 구두와 가방, 커피는 전통적 의상인 한복과 대비되는 현대적 소재인 한편 한복과 함께 저의 표현 욕구를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물건"이라고 말했다.

전통을 중시할 것 같은 한국화에 현대인의 당당한 일상을 담은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나라는 사람을 표현하는 게 화가의 업인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일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이었다는 결론에 이르렀죠."

어떤 물건을 고르더라도 내 맘에 드는지 보다는 '이게 남들한테 좋아 보일까?' 하는 걸 먼저 신경 썼다고 김 작가는 남의 시선이 내 거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중심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런 것들을 '시선 이야기'로 할까 하다가 너무 무거우니까 위트 있

게, 가볍게 시작하자 했던 게 '내송'이었어요."

김 작가는 내송이야기에 이어 '21세기 풍속도' 시리즈를 그려내고 있다. '비너스의 탄생' '이태리스타일' 등은 한복이 아닌 일상 속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렸지만 외국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한국인의 일상들을 그려냈다는 점이 다르다. 그렇다면 김 작가가 생각하는 '한국'은 무엇일까.

"예를 들어 뉴욕에서 개인전을 열었을 때 외국인 관람객들이 '나를 움직이는 당신' 작품을 보고 환호했던 게 기억에 남아요. 한복 입은 여성이 맥딜리버리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그림이었는데 '맥도날드를 어떻게 딜리버리 할 생각을 했냐'는 거예요. 그때서야 맥딜리버리가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전통, 옛것도 좋지만 맥딜리버리를 비롯해 짬뽕, 때밀이 등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문화들도 얼마든지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21세기 풍속화로 재현한 '한국'

김 작가는 예술고등학교 1학년을 보내고 수목화에 매력을 느껴 동양화 전공을 선택했다. 특히 김홍도 선생의 작품들을 '한국의 미'라는 관점에서 해설하고 조명하는 책 '한국의 美특강'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다고. '무동'과 '씨름'에 나타난 김홍도 선생의 위트와 섬세한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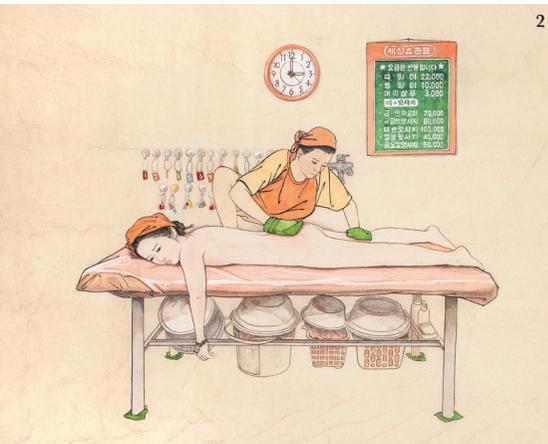


1 비너스의 탄생, 48,2cmX33,1cm, 2017
2 내송:삼포세대 미쓰김, 156cmX112cm, 2016
3 내송:할부인생, 159cmX115cm, 2016
4 내송:내송동산, 250cmX396cm, 2016
5 내송:완벽한 밥상, 130cmX162cm, 2013

- 1 내송: 나를 움직이는 당신, 130cmX196cm, 2013
- 2 이태리 스타일, 48.2cmX40.6cm, 2017
- 3 내송: 스물 일곱, 세월의 무게, 130cmX189cm, 2014
- 4 내송: 달콤한 속삭임 (feat. 한도초과), 120cmX176cm, 2016
- 5 새빨간 거짓말, 182cmX119cm, 2013



1



2



3



4



5

찰력, 생동감 넘치는 운필능력을 좇아 이루고 싶은 마음에 동양화 고유의 기법과 재료를 고집했다.

“동양화에는 크게 중국화, 일본화, 한국화가 있는데, 중국은 수묵, 일본은 채색기법을 중심으로 합니다. 한국은 두 나라의 사이에서 수묵기법과 채색기법을 함께 다루고 있는데 이를 각각 수묵과 담채 기법이라고 하죠. 수묵 기법은 먹물의 농도를 이용해 표현하는 기법으로 아궁이의 그을음을 모아 만든 묵으로 전통의 검은색을 표현하고 있어요. 작품 속에 있는 소품들에는 전통 재료 분채와 아교를 함께 섞어 만든 물감으로 채색하는 담채 기법을 사용했어요.”

작품 배경과 아이템은 굉장히 현대적이지만 표현기법과 재료는 전통을 고수해 전통적미를 살리면서도 대중들이 편하게 향유하고 공감하는 작품을 그려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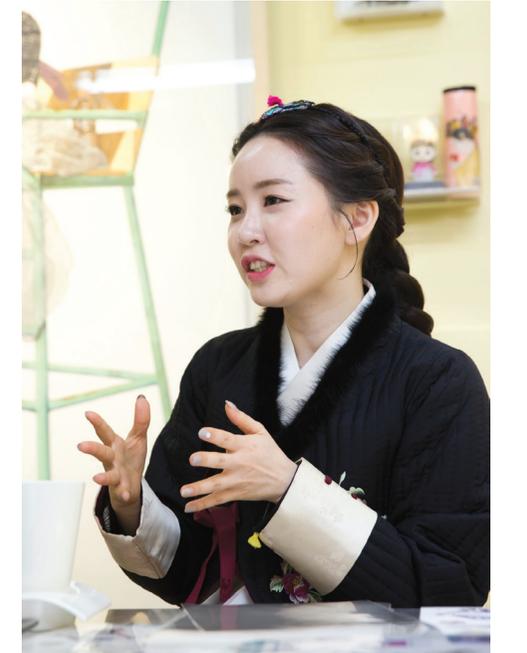
김 작가는 한국의 수묵화와 한복, 한지가 주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세계무대에 당당하게 내놓고 인정받고 싶다고 말했다.

“서도호 선생은 ‘집 속의 집’ 등의 작업에서 우리 전통 한옥을 전통 천을 이용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국적 아름다움의 요소들을 재해석함으로써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창조해 내는 게 멋지다고 생각해요.”

김 작가는 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스며들 수 있는 미술을 꿈꾸고 있다. “제 꿈 중 하나가 마치 음악처럼 미술을 생활의 일부로서, 생활의 저변에서 누구나 쉽게 향유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무라카미 다카시 작가의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사례는 미술이 상업의 영역에 파고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다른 작가들로부터 영감을 얻기도 하지만 김 작가가 만들어낸 작품들이 자화상인 만큼 실제로 일상의 순간에서 영감을 얻는 부분이 제일 크다.

“예를 들어 ‘투혼’은 끼니를 거르며 작업을 하다가 쓰러지겠다 싶었던 순간에 전투적으로 햄버거를 먹던 것에서 영감을 얻었어요. 배가 고파도 그림을 그리던



김작가는 “미술을 생활의 일부로서, 생활의 저변에서 누구나 쉽게 향유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중이었기 때문에 손에 기름을 묻히지 않으려고 빨대로 감자튀김을 집어 먹는 모습을 표현했는데요, 이렇듯 일상에서 영감을 얻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품 속에는 김 작가가 평소 애정과 관심을 나타내는 요소들로 가득하다.

“제 작품들은 저의 생활과 마음을 고백해가면서 사람들의 통념적 시선에 맞서 자아의 본 모습을 찾아보겠다는 고민의 산물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저의 ‘고백적 자화상’에서 구두, 가방, 쇼핑 등에 대한 저의 애정과 관심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상생 모색

‘잘 나가는’ 한국화가이지만, 그 역시 젊은 작가들이 겪는 현실적 고충의 무게감을 느끼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아 작품과 이미지에 대한 수요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작가로서 작품 활동을 할 때 행복을 느끼지만 자신의 세계에서 젊은 작가들이 약자라는 것을 실감할 때면 좌절감을 느끼기

도 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은 가족과 지인들의 후원과 응원, 작품과 미술을 사랑해 주는 사람들의 관심 덕분이다.

“부모님은 저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그에 대한 감사함 때문에 힘들어서 잠시 쉬고 싶을 때에도 스스로를 다그치게 되요. 블로그 등에 글을 남겨주는 분들의 관심이 자신감과 용기를 주기도 하죠. 많은 관심과 응원이 실제로도 작가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이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김 작가는 창작인들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공을 가진 예술가들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작가는 현재 'H&A CENTER'라는 김현정 크리에이티브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는 영화, 섬유예술, 문화 예술 등 다양한 전공을 가진 연구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김 작가가 다양한 전시를 하고, 브랜드 콜레보레이션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들과 함께했기에 가능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기업들과의 협업 프로젝트가 늘어나면서 그림 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많이 연구해야 했어요. 다행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서 활약한 덕분에 재밌는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집단지성이라고 하면 될까요. 확실히 저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느꼈고 가급적 많은 것을 함께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 작가는 작품을 넘어 다양한 상품들을 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미지 저작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음악 저작권은 비교적 보호가 잘 되고 있지만 이미지 저작권은 아직도 보호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작권을 보호해주는 기관과 시설이 많이 있지만 협업작가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다는 것. 김 작가는 “공모전이나 예술인 지원 사업을 진행할 때 콘텐츠 선정과 데이터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확인 할 수 있는 투명한 제도가 필요하다”며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❶

협업 사례로 본 '현대여성의 일상'



'달리기마(馬)/Let's Run' 2015
한국마사회의 경마장 헛초런파크와의 콜레보레이션 작. 전통회화의 주마도(走馬圖)를 모티브로 해 말이 전속력으로 질주할 때 네 발이 공중에 뜨는 순간을 포착했다. 주로 기마인물도에 등장하는 양반, 혹은 귀족이 아닌 젊은 여인의 모습을 통해 신선한 인상을 그려냈다.



'코카콜라:금빛질주 쇼트트랙'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아 코카콜라와 김현정 작가가 국민의 염원을 담았다. 매끄러운 빙판위를 달리는 여인과 쇼트트랙 선수들의 모습은 승패를 떠나 짜릿함을 선사한다.



'비슈롬:비슈롬X나르시스' 2017
한복을 입고 조신하게 앉아있는 대신 아무렇게나 엮드려서 렌즈를 착용하는 모습을 그렸다. 예쁜 표정과 포즈를 지닌 주인공의 모습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일상 속 여성을 볼 수 있다.



HOT TREND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딸기가 캐릭터와 만나면서 여성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를 의미하는 '가심비' 성향이 보편화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증샷'을 올리는 문화가 유행하면서 20~30대 여성들을 공략한 딸기와 캐릭터의 협업 제품이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콘텐츠산업을 달구고 있는 '핫' 트렌드를 모았다.